

소망의 언덕



최정원 목사
광주소망교회 담임

위대한 부흥사 이성봉(1900~1965) 목사님에게 습관 이 하나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항상 왼손을 주먹 쥐고 다니는 습관이였다. 설교 할 때에도, 길을 걸을 때도, 심지어는 잠을 잘 때도 그는 항상 왼손을 쥔 채로 살았다. 왼손이 불편하거나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었다. 그가 주먹을 쥐는 이유는 성령님을 의식하는 행동이었다. 성령님께서 항상 자신과 동행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살고 있음을 표현하고자 주먹을 쥐었던 것이다. 이것이 그의 영적 훈련이요 투쟁이었다.

조용기(1936~2021) 목사님은 설교하기 위해 강단으로 올라갈 때마다 “성령님 저와 함께 가 주세요(Let's go, Holy Spirit)”라고 외치며 강단에 오르셨다고 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전 3:16) 우리는 이 진리를 알지만 생활 속에서 누리지 못할 때가 많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님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신다. 이성봉 목사님과 조용기 목사님의 한평생을 걸

고생스럽고 고독한 환경에서 어떻게 16년을 살 수 있었습니까? 리빙스톤은 서슴치 않고 대답했다. “주님의 두 마디 약속이 나로 하여금 신을이나 불령 대신 찬송을 부르며 승리하게 하였습니다.”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은 요14:18.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다.”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은 마28:20. “불지아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리빙스톤 역시 임마누엘의 약속이 그의 평생의 다짐들이었고 버림목이었던 것이다.

일본의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三浦綾子, 1922-1999)는 13년 간의 투병 생활을 했다. 그가 언젠가 이런 질문을 받은 일이 있었다. “기독교에는 불교에서와 같은 염불은 없습니까? ‘나무아미타불’ 같은 것 말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기독교에 염불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슷한 말은 있습니다. 그것은 ‘임마누엘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를 뜻합니다. 그리고 ‘아멘’이라는 것은 ‘참으로’ ‘진실로’라고 동의하는 말로서, 이것은 세계 공통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아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실로 그렇습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나는 오랜 생활 가운데 문득 쓸쓸해지면, 곧잘 이 ‘임마누엘 아멘’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전능하신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어 온전히 지켜주시는 줄 알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어떤 좋지 않은 생각이 마음에 스치는 때에도 ‘임마누엘 아멘’이라고 했습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는데 참으로 기막힌 대답이 아닐 수 없다. 미우라 아야코는 자신에게 달려드는 질병의 문제도 임마누엘 아멘으로 감시했던 것이다.

한경지 목사님의 글을 읽어보면, 북한에서 묵회 하

새해에도 임마누엘의 은혜로

친 피나는 임마누엘의 노력이 오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

옛날의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아들에게 용기를 심어 주는 훈련을 시켰다. 여러 가지 훈련이 있었지만 그 중의 한 가지는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산길 한복판에서 홀로 밤을 지새는 훈련이었다. 말할 것도 없이 그 사내 아이는 지극히 외롭고 또 두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 그 아이는 아버지가 화살을 뽑아 들고 언제라도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민반의 준비를 갖춘 채 나무 뒤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아들은 모르지만 아버지는 방새껏 아들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근심과 불안의 세상에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밤을 때나 어두울 때나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요한 복음 16장 32절에서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흩어질 것을 아셨고 그래서 혼자 남을 것을 아셨지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 임마누엘되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사할 때 임마누엘의 은혜로 사셨음을 알 수 있다.

의사, 선교사, 탐험가인 데이빗 리빙스톤(David Livingstone, 1813-1873)은 “아프리카에 길을 내라”는 비전을 품고 선교에 헌신했다. 리빙스톤이 16년간 아프리카 정글의 고독과 싸우다가 고국에 돌아와 글라스고 대학교에서 강연했을 때 한 학생이 물었다. “그렇게

시다가 무슨 일 때문이었는지 몸이 낙심되어서 “이제는 목사 사표를 내고 묵회를 그만둬야겠다”고 고백하려 있는데 비통사동간에 자기가 험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 너무나 파곤하여 오른쪽으로 쓰러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큰손이 나타나서 일으켜 세우더라. 또 험악한 길을 걷고 있는데, 이번에는 왼쪽으로 쓰러지려고 하니 갑자기 큰손이 나타나서 일으켜 주더라. 또 죽을 힘을 다해 걸어가다가 이번에는 앞으로 쓰러지려고 하니 갑자기 큰손이 나타나서 일으켜 주더라. 그렇게 계속해서 험악한 길을 걸어다가 눈을 번쩍 떠서 보니까 잠깐 것도 아니고 생시도 아닌데 역력한 환상을 보았는데 그 때에 “내 힘으로 묵회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주시구나”라고 깨달으시고 그 험악한 묵회 생활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묵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상대는 주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은밀한 죄, 열기, 미움, 싸움, 거짓말, 허탄한 농담을 함부로 한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모르고, 주님의 임재가 뭉치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해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히12:2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믿음(시편 121:1~2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으로 살아갑시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묵회산책



요즘 여론의 시선은 ‘구형’과 ‘선고’라는 법정의 언어에 쏠려 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묻고 붙들어야 할 것은 형량의 숫자가 아니라, 한밤중에 민주 공화국의 숨통을 조였던 사건의 과정과 교훈이다.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국회는 새벽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으며, 계엄은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 이 짧고도 긴 6시간은 “우리의 헌정 질서가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가”를 몸으로 각인시켰다. 그 뒤의 시간도 결코 짧지 않았다. 계

때 비로소 내란은 끝났다. 법의 판단은 그 결별을 제도적으로 확정하는 마지막 문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감정의 전쟁이 아니라 진실의 기다림으로, 보복의 열정이 아니라 법치의 인내로 이 시간을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솔직히 고백하자. 한국교회는 역사적으로 권력의 폭주 앞에서 자주 침묵했고, 때로는 “질서”와 “안정”이라는 말로 불의와 타협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결국 불의를 방조하는 방식이 되기도 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는 단지 ‘누구 편을 들었는가’가 아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았고, 약한 이들의 공포를 함께

서야 한다.

실천은 분명하다. 첫째, 회개의 기도를 드리자. 교회가 권력의 그늘을 쫓고, 불의 앞에 침묵한 죄를 공동으로 자복하자. 둘째,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리자. 재판이 지연도, 졸속도 아닌 공정한 절차로 진행되어 진실이 드러나게 하고, 판단 이후에도 사회가 파열이 아니라 회복으로 나아가게 해 달라고 간구하자. 셋째, 성찰의 시간을 제도화하자. 주일 설교와 교육, 청년·장년 모임에서 “권력과 폭력, 법치와 양심, 교회의 공공성”을 주제로 토론하고 공부하자. 교회가 다시는 ‘불법의 동조자’가 아니라 ‘공의의 증인’으로 서기 위한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 ‘사건’ 하나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다. 한밤의 계엄이 남긴 두려움과 분열, 그리고 그 위기를 제도로 수습해 낸 시민의 성숙을 함께 기억하며, 이 나라가 다시는 같은 길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내란 종식을 시대적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 길의 한복판에서 한국교회는 침묵을 내려놓고, 회개로 돌아서야 한다. 그리고 법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선동이 아니라 기도로, 확증편향이 아니라 성찰로 나라의 상처를 함께 깨닫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내란의 끝은 “선고”가 아니라 “성찰”에서 시작된다

업 사태는 탄핵 절차로 이어졌고,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어 60일 이내 처리되는 조기 대선 일정이 2025년 6월 3일로 잠정·확정되는 과정이 진행되며, 국정은 다시 제도 안으로 수습되었다. 그리고 지금, 형사재판은 방대한 기록과 다수 증인신문을 거쳐 1심 절차가 마무리되고 선고가 앞두고 있다.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은 분명하다. “내란의 종식”은 특정 인물의 처벌로만 완성되지 않는다.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밖에서 국가권력을 휘두르려는 유혹, 위기라는 이름으로 기본권과 의회를 겁주며 굴복시키려는 관행, 반대자를 ‘적’으로 규정해 폭력을 정당화하려는 언어 - 이 모든 것과 결별할

필요되지 않았으며, 헌정 질서를 “세상일”이라며 외면했던 무관심이다.

그러므로 지금 한국교회가 드러야 할 회개는 정파적 선언이 아니라 복음적 성찰이어야 한다. 교회는 어느 편의 확성기가 아니라, 양심의 등불이어야 한다. 교회가 지켜야 할 것은 특정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 존엄”, “거짓에 대한 진실”, “힘의 남용에 대한 절제”이며, 이는 곧 헌법이 지향하는 공공선과도 만난다. 계엄과 내란 혐의가 왜 치명적인가를 두고 사회에 다양한 주장이 있으나, 불법·위헌 여부와 책임의 확정만 결국 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매듭지어질 것이다. 그렇기에 교회는 선동 대신 기도와 성찰로, ‘진영의 확산’ 대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이박형 목사

본지 주필
간경한 교회의 사회 참여대표
한국교회생명신학포럼 총무
예장합동 기후환경위원회대응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도움, 일터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직장인콜링 100일 묵상집 _ 3. 일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장생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선지자 미가는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지, 심지어 자기의 죄를 사하기 위해 자식을 바쳐야 할지를 질문한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에게 진심으로 드려왔던 모든 제사제도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강한 메시지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 미가의 외도는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에도 없이 드리는 제사의 제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정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배워야 한다. 둘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배

풀어주신 그 사람과 자비를 기억하여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셋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무엇을 얼마나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로 사는지, 누구와 동행하는지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 고민한다. 그래서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만족하실지 질문한다. 얼마나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져다드려야 할지 고민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것이 잘못이다. 하나님의 속성을 닮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장생활이다.

>>> 일하는 사람의 기도

제가 소원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존재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 것인지 고민하며 오늘 하루도 일하게 인도해주소서.

본지는 위 글을 저자와의 협의를 거쳐 연재한다. (원동일 목사 지음/도서출판 브니엘)

**매일 드리지는 예배와
현대의학이 접목된 나사렛요양병원은
전인적인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선교병원입니다.**

**진료
과목**

**뇌출혈, 뇌경색, 치매, 정신건강, 한방치료
재활치료, 노인만성질환전문**

58228 전남 나주시 남평읍 세남로 1550
 직통 : 061) 339-9905. FAX 061) 334-2345
 이사장 - 강봉규 목사 tel. 010-2604-0560
 상 담 - 김성기 사무국장(집사) tel. 010-7676-6706
<http://peacemind.co.kr>

보건의료부 인종의료기관